

▶ 特輯—壬午軍亂 110 周年紀念, 壬午軍亂을 해부한다

## 『渚上日月』에 비친 壬午軍亂

朴 成 壽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敎수)

### 머 리 말

『渚上日月』註은 경북 예천에 사는 咸陽 朴씨네가 5代에 걸쳐 써내려 온 日記로서 한국근대사의 새 史料이다. 이 일기의 1882년 부분을 해설문과 함께 실어 보기로 하겠다. 임오군란을 직접 겪었던 當時代人들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 지금의 역사가들이 임오군란을 보는 視角과 얼마나 다를까. 이 점에 유의하면서 이 글을 읽어 주기 바란다.

註 현재 서울신문에 연재중임.

## 1. 군란의 발단

임오군란이 일어나던 해는 몹시 가물었다. 음력 6월초(양력으로는 7월말)까지 한방울의 비도 뿌리지 않았으니, 農心은 흉흉하고 도처에 火賊떼가 횡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각도에 기우제를 지내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여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1882年(高宗 19年)

5月10日. 가뭄이 너무나도 심하여 民情(민심)이 흉흉하다. 곳곳에 火賊黨이 붐기하여 지방수령들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5월 25日. 서울 北郊에서 祈雨祭를 지냈는데 임금이 친히 香과 祝文을 내렸다고 한다. 또 이튿날 先農壇 기우제를 지내는데도 임금이 친히 헌관에게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고 한다.

이때 지방에서는 관찰사들이 몸소 말을 타고 名山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기우제를 올렸는데, 어떤 관찰사는 어떻게나 정성이 지극한지 기우제를 지내자마자 갑자기 몇 발울의 비가 내려 모두들 신기하다고들 수군거렸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몇방울의 비를 가지고서는 갈리진 민심의 논밭을 적실 수 없었고 모두들 왕이 不德한 소치라고만 원망하였다. 그러한 때에 임금의 거처인 昌德宮에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난데없이 荒馬가 궁안에 뛰어 들어 仁政殿까지 침범했던 것이다. 이 소문은 즉시 장안에 퍼졌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6月 1日. 酉時(하오 5시)에 갑자기 放逸馬가 창덕궁 丹鳳門에 뛰어들어 差備門을 지나 감히 인정전 뜰안까지 들어가 미친듯이 돌아다녔다.

말은 다시 春坊(世子侍講院)으로 들어가 建陽峴을 넘어 司僕寺(말과 거마 일을 맡아 보던 관청)로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병조의 入直堂上과 守門將

이 즉시 파면되어 투옥되었다. 미친 말이 대내에까지 난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루 속히 경복궁을 수축하여 금년말까지 임금이 이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傳敎가 내렸다.

이 荒馬사건은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불과 나흘전의 일이었으며 매우 불길한 조짐으로 받아 들여졌다.

임오군란은 결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혁명이 아니었다. 전혀 자연발생적인 병사들의 폭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閔氏정부가 五軍營을 二軍營으로 축소시킨 졸렬하고 성급한 軍制개혁이 군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1月 1日. 조정이 오군영을 혁파하여 京畿內에 武衛營과 壯禦營만을 두기로 하고 무위영대장에 李景夏를, 장어영대장에 申正熙를 각각 임명하였다.

둘째로 別技軍이란 이름의 신식군대를 따로 조직하여 호리모토(堀本禮造)란 倭軍장교(육군소위)를 불러들여 훈련교관 노릇을 하게 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여도 원수요 적군이 아닌가. 그런 왜군을 끌어들이고 괴상한 黑服에 괴성같은 호령을 연창하며 돌아다니게 하니 나라의 체통이 말이 아니며 舊軍병사들에 대한 직접적 도발행위나 다름 없었다. 이놈의 倭別技軍 두고 보자. 바로 이러한 때에 한 별기군 병사가 난동을 일으켰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2月. 포졸의 농간으로 한 양민의 아내가 은비녀를 물고 자살하였다. 마침 그녀의 남편이 왜별기군이였다. 그는 병졸을 이끌고 포도청(左捕廳)을 습격 파괴하였다. 무법천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신식군대는 기세등등하였는데 舊軍병사들은 제때에 월급

도 못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었다. 밀린 봉급이 무려 1년 하고도 1개월이었다. 6월초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쌀가마 배가 麻浦나루에 도착하였다. 허기진 병사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갔다. 그러나 이게 뭔가. 쌀이 아니라 모래였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6月 5日. 宣惠廳(각종 貢納米를 맡은 관청)에서 都監軍의 밀린 봉급미를 지급하는데 쌀빛깔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또 그나마 한 섬이 네말 아니면 여섯말 밖에 안되고 모래와 쌀겨가 절반이었다. 거기다 되질도 않고 몇 명씩 묶어서 가마니떼기로 지급하니 兵士 한 사람이 항의하였다.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여 쌀 한되에 5錢이나 하는 세상에 비록 하늘이 두려운 말이긴 하나 어찌 이런 쌀을 사람이 먹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러나 배급을 주던 庫直이가 말하기를 “너는 먹기 싫은 모양이니 싫으면 놓고 가라”고 내뱉었다. 이에 격분한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고지기를 구타하면서 말했다. “이것이 어찌 네가 사사roi 지급하는 것이더냐, 變色된 쌀에 모래가 절반이요 되(升)수 또한 엉터리니 네가 바로 國賊이다” 매맞은 고지기는 분한 나머지 상전인 선혜청당상 閔謙鎬에게 달려가서 간악하게 자초지종을 왜곡해서 설명했다. 이에 격분한 민겸호는 형조에 앞장 선 병사 네명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중 2명은 刑曹에 갇히고 다른 2명은 포도청에 갇혔는데 포도청에 갇힌 2명은 死刑에 처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자자하였다.

이날 군란은 열두시(午時)에 일어났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난이 일어나자마자 오후 세시(申時)부터 장대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오랜 가뭄이 끝나고 장마철로 들어섰다.

누군가가 ‘역사는 우연이다’고 말했으나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며칠만이라도 일찍이 비가 내려 흙먼지가 나지 않았더라도 무사였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별기군의 훈련장은 남산 밑에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앞으로 갔!’ ‘뒤로 돌아 갔!’ 하는 호령에 맞추어 행진하는데 그 때문에 흙먼지가 장안을 뒤덮었다. 舊軍병사들은 가뜩이나 월급도 못받아 화가 나 있는데 흙먼지까지 뒤집어 쓰니 약이 오를 수 밖

에 없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였다. 黃梅泉의 말을 빌리자면 “이를 갈며 죽여버리겠다”(咬牙慾殺之 小民尤甚)고들 버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沙米에다 沙塵이 임오군란의 도화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6月 9日. 각 영의 병사 1백여명이 집결하여 거리로 뛰쳐 나왔다. 그 일대는 무위영대장 이경하집으로 달려가서 민겸호의 비행을 규탄하였고 다른 一隊는 선혜청으로 달려가서 두들겨 부었다. 이때 선혜청을 지키고 있던 청지기과 奴屬들이 짓밟혀 죽었다. 민겸호는 마침 경복궁의 수축공사를 지휘하느라 선혜청을 나가고 없었다. 성난 병사들은 경복궁으로 달려갔다. 광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민겸호는 새문으로 빠져나가 임금이 계신 창덕궁으로 피신하였다. 민겸호를 농친 병사들은 운현궁으로 몰려가서 13개월이나 밀린 봉급미 하며 선혜청 고지기의 죄상하며 날날이 직고하였다. 이 소리를 들던 大院君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東別營에 가서 기다리면 곧 선처가 있을 것이다”고 달랬다.

운현궁을 몰러난 병사들은 형조와 포도청으로 몰려가서 수감된 네명의 동료병사들을 석방하고 다시 의금부로 찾아가서 옥에 갇혀 있던 선비 白樂寬을 석방하였다. 흥분한 병사들은 백낙관을 교자에 태워 동별영으로 인도하였고 그를 대장자리에 앉혀 白使道라고 외쳤다.

백낙관은 앞서 열렬한 斥邪疏를 올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혼자서 남산에 올라가 햇불을 들었던 과격 守舊派 유생이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극우파였다고 할 수 있다.

사태가 이같이 험악해지자 高宗은 아버지 대원군에게 입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세번이나 王命이 떨어졌는데도 꿈쩍달짝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입궐, 무위대장 이경하로 하여금 병사들을 호위케 하였다.

그러나 이경하를 배웅하고 갔던 執事(요즘의 비서관)가 병사들에게 피살당하자 이경하는 황급히 초롱불을 끄고 도망치고 말았다.

舊軍병사들이 몰려간 곳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뒤탈은 일본공사관을 습격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병사들은 天然亭(서대문에 있던 일본 공사관)에 放火하였다. 倭인들이 붙잡혀 살해된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한 자들이 많았으므로 한강의 뱃사공들을 단속하여 모든 배를 일제히 검색하였다. 호리모토(堀本)와 하나부사(花房)公使를 붙잡았다가 놓쳤다고 한다.

일본공사관이 화염에 싸였을 때 공사관 밖에는 군중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28명의 일본인들은 총대를 앞세워 결사의 돌파작전을 감행하였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1882년 6월 9일의 여름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 2. 軍亂의 波長

1882년의 임오군란으로 閔妃가 추방당하고 대원군이 오랜만에 재등장했다. 그러나 잠시 權座에 올랐을 뿐이었으므로 이 역사의 단막은 아주 짧았으나 사연은 복잡하였다.

군란이 일어나던 9日 밤에는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人定 쇠북 소리도 없었고 해제를 알리는 罷漏의 쇠북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또 巡邏꾼이 돌지 않고 서울 四大門을 여닫는 파수꾼도 없었다. 다음 10日 밤에는 대궐을 지켜야 할 군졸들마저 도망치고 말았다.

1882年(壬午年 高宗 19年)

6月 10日. 初 9日 밤에는 人定·罷漏·巡邏가 없었으며 四大門도 닫지 않았는데 초10일 밤에는 대궐안에 파수병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창덕궁 돈화문 앞에는 수만명의 군인들이 군중과 어

올려 “中殿(민비)을 죽여라!” “민가놈들의 씨를 말리자!”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에 보면 겹에 질린 고관대작들과 시민들은 모두 산속으로 숨어 버려서 온 長安이 빈집처럼 조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 밤에는 온 장안이 모두 비고 산으로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군인들을 격동시켰는가. 민비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말 한마디로 千兩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민비의 “쓰러버려!”라는 한마디 말때문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日記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6月 10日. 어제 대원군이 대궐에 들어가 고종에게 아뢰기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군인들의 요구(선혜청 고지기를 인도하라)를 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고 했다. 이때 中殿(민비)이 옆에서 말하기를 “그까짓 亂軍은 모조리 섬멸하는 일이 그리 어렵겠소”하였다. 武監 한 사람이 이 말을 엿듣고 있다가 돈화문 밖으로 달려나가 군중을 향해 외쳤다. “우리가 이대로 물러난다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말을 듣자 1만여명의 군졸들이 총검을 들고 일제히 대궐 안으로 쳐들어가 먼저 민겸호와 金輔鉉을 찢러 죽였다. 이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피가 셋겨 내려 錦川橋 밑의 물빛이 鮮紅色으로 변했다고 한다.

민겸호(1838~1882)는 왜별기군의 창설자이자 宣惠廳堂上이었고 김보현(1826~1882)은 前任 선혜청당상이자 通商堂上이었다.

순식간에 왕궁은 지옥으로 변했다. 군졸들은 “중전을 내어 놓아라”고 고함을 질렀고 민비는 宮人옷을 갈아 입고 대궐을 빠져 나갔다. 고종은 아버지의 허리띠를 잡고 “날 살려주오”라고 애걸하였다.

대전(고종) 중전(민비) 세자(순종)는 창덕궁 威寧殿에 있었다. 한 무감이 대전을 업고 熙政堂으로 피신하였고 중전은 유모 옷을 갈아입고 무감 洪在

羲의 등에 업혀 대궐을 빠져 나갔다. 군졸들은 회정당을 둘러싸고 총검으로 마투를 치면서 “중전 한 사람만 내어 놓으시면 물러가겠소”라고 소리 질렀다. 겁에 질린 고종은 아버지 대원군의 허리띠에 매달려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軍摠主 날 살려주세요, 군총주 날 사리려주세요”를 연발하였고 대왕대비는 합장을 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오”라고 빌었다. 어린 세자(순종)는 대원군의 무릎위에 안겨서 손을 비비며 울고 있었다. 혹시 군인들에게 중전이라고 오인될까봐 대왕대비는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대왕대비요”라고 했다. 그러자 군졸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여 “小人들의 大母이십니다”고 했다. 王大妃가 또 얼굴을 들고 “나는 왕대비요”라고 말하자 군졸은 일제히 머리를 숙여 “소인들의 어머니이십니다”고 하였다. 順和宮이 얼굴을 들고 “나는 순화궁이다”고 말하자 군졸들은 합창하듯이 “소인들의 隣母이십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 궁안에 피신해와 있던 朝臣들은 하나하나 병졸들의 신문을 받고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혹은 죽고 혹은 풀려났다.

또 군사들이 訓練大將과 禁衛營大將을 역임한 趙寧夏(1845-1884)를 붙잡으려 하자 한 軍士가 말하기를 “이 대감은 선혜청에 계실 때 전담까지 팔아서 우리들 月俸料(월급)를 댔던 분이시다”고 했다. 그러자 병사들은 모두 놀라서 사과하고 풀어 주었다. 또 칠저한 수구과 관료로 이름난 金炳始(1832-1898)를 잡았는데 한 병사가 “이 대감도 우리 월봉료를 잘 주셨던 분이다”고 말하자 모두 그 말을 믿고 풀어주었다. 공조판서를 지낸 鄭範祖(1833-1898)는 얼굴을 치켜들고 “나는 會洞 鄭政丞(강화도령을 데려다가 왕위에 앉히고 고종 즉위시까지 영의정을 지낸 명재상 鄭元容(1783-1873)의 손자이다”고 하자 군졸들은 일제히 “우리들이 어찌 감히 鄭相國(정원용) 대감을 잇을 수 있겠습니까”하면서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때 內侍 두 사람이 “너희들이야말로 綱常之道를 범한 역적이다”고 고함을 치자 화난 군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찢어 죽였다. 한편 어영대장을 지낸 閔台鎬(1834-1884)는 이마와 어깨에 상처를 입고 通化門으로 도망쳤고 內侍·內人·倭別技軍들은 모두 귀구멍을 찾아 도망치는데 비를 맞고 엎어지며 넘어지는 꼴이 참담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대원군이 말하기를 “중전은 이미 자결했다. 내일 이 소식을 頒布할 터이니 그때 사실과 다르면 다시 쳐들어와도 된다”고 했다. 이 소리를 믿고 군졸들은 모두 소리를 내고 돌아갔다.

그러나, 군졸들이 왕궁에서는 물리갔으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閔氏姓을 가진 大監집은 모조리 습격, 처형하였다. 一大虐殺劇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대원군의 兄인 이최응의 죽음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군졸들은 먼저 校洞 李最應의 집을 부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최응을 죽였다. 군병들은 그가 다시 살아날까 염려하여 長槍으로 肛門을 찔러 창날이 머리와 뺨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장안의 민哥놈은 다 죽이겠다”고 호언하면서 閔謙鎬 閔台鎬 閔奎鎬 閔斗鎬 閔泳翊 閔致序 閔致庠 閔泳穆 閔昌植은 鐘樓에 끌려나와 난자질 당하여 죽었다. 이에 놀란 민씨들은 모두 도망하였다.

또 김보현의 큰 집 작은 집과 申觀浩 韓聖根 尹興烈 洪沅 李泰膺 內營執事등숙과 中人通倭者(日館통역관)의 집들이 모두 파괴되었다. 홍완은 포박되어 죽이려 들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그밖에도 閔家와 친근한 사람이나 궁궐에 출입하는 점쟁이 무당들 집까지도 모두 파괴하여 이날 피살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한편 대원군은 이날 긴급지시를 내려 별기군은 폐지하고 오군영을 다시 설치한다는 舊制復活을 선언하였으며, 맏아들 李載冕을 훈련대장에 임명하여 병권을 장악하고 어영대장에 申正熙, 금위대장에 趙熙淳을 각각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때 대궐 안에는 한 사람의 朝臣도 없었다고 하니 결국 빈 집에서 대사를 치른 격이었다.

이상이 1882년 6월 10일 단 하룻동안에 일어난 사건의 전모였다. 그러나 일기에 보면 이때 舊軍兵士들이 대궐안에서 대원군에게 한 중대한 말이 나온다.

대원군이 병사들을 회유하고 또 애걸하자 병사들이 말하기를 “대감은 염려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하면서 “한사람(민비를 두고 한 말)을 처단한 뒤 모든 민가들을 죽이고 나면 새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대감과 함께 太平聖代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고 했다 한다.

이튿날 대원군은 병사들에게 약속한대로 민비의 國喪을 발표하고 새로운 關僚名單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은 행방이 묘연한 민비를 찾아 사방으로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돌아가신 國母를 향해 望哭하는 사람들이 있어 화난 병사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6月 11日. 이날 오전에 중전이 승하하였다는 반포문을 보고 대궐문에서 望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졸이 욕설을 퍼부었다. 轎子를 타고 와서 뭇한 재신들은 교자를 빼앗기고 걸어서 돌아갔다.

그러나 민비는 이때 單輻(혼자타는 가마)를 타고 서울을 탈출, 한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 3. 淸日兩軍의 서울 占領

대원군은 9년만에 다시 권좌에 올랐다.

1882年(壬午年 高宗 19年)

6月 15日. 왕은 임오군란 후 傳教를 내리기를 “이후부터 크고 작은 공무는 모두 대원군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한 무위영을 혁파하여 이전대로 훈련도감이라 부르고 그 밖의 軍營도 모두 복구하였다.

대원군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정권의 反革命 음모를 분

쇄하는 일이었고, 다음으로는 國喪을 치러야만 했다. 대원군은 이 일을 신속하게 해냈다. 그러나 셋 모두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6월 12日. 보부상과 宿衛軍 그리고 한강의 邏卒들이 진을 치고 군난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군졸들이 무식하여 무턱대고 사람을 죽이게 되니 상경하던 유생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3일 동안 거리에는 사람의 통행이 끊겼다.

한편 운현궁에서는 8개월간 밀린 軍料米를 지급하였는데 무려 10만 2천냥에 달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국고가 탕진되었다.

6월 14日. 왕이 대신과 예조당상관을 불러 들어 入侍토록 하고 명령하기를 “坤殿(민비)의 體魄(시신)을 사방으로 수소문했으나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으니 어찌하겠나. 우선 옷감만으로도라도 장례를 지내자”고 하였다. 예조 당상관들은 모두 왕명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승정원 홍문관의 금부에서도 역시 뜻이 같았다. 성균관 학생들은 捲堂(동맹휴학)까지 하면서 반대 상소를 올렸다.

이날 경기도에서 反革命軍이 조직되어 서울 침공을 획책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조판서 吳相麟이 그 주동자였는데 사건내용으로 보아 親日쿠데타였던 것이 분명하다.

6월 14日. 이조판서 오상린이 왕명을 빙자하여 보부상들을 소집, 廣州의 병기를 지급하였다. 사전에 일이 발각되어 오상린 집이 籍沒되었는데 都錄 1책이 발견되었다. 도록에는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閔泳翊 등이 左右關白으로 취임하고 왕은 마치 倭皇처럼 추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민비의 장례식은 6월 18일 거행되었는데 시신이 없으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6월 18日. 왕은 成服하였으나 세자(뒤의 순종)는 나이가 어려 성복의 班

列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어머니 민비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재집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內政이 아니라 外政이었다. 나라밖 사정은 19년전 대원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천양지차이로 변해 있었다. 임오군란으로 일본공사관이 불타버렸고 호리모토(堀本)라는 일본군소위 등 13명의 일본인이 죽었으니 우선 일본이 가만 있을리 없고 중국(청) 또한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 뻔하였다.

仁川에서 영국배를 타고 탈출했던 일본공사 하나부사일행은 귀국 즉시 도쿄에 상황보고를 타전하였다. 놀란 일본정부는 明治日王 주재하에 긴급 각의를 열어 對韓강경대책을 결의하였다. 군함 4척을 급파하여 조선정부를 굴복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駐日淸國대사이다. 재빨리 본국에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국 또한 군함 4척을 한국에 급파하였다. 그러나 인천에 와보니 일본군함이 먼저 정박해 있어 방향을 바꾸어 京畿道南陽灣에 4천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서울로 진군케 하였다. 서울에도 역시 일본군 1천여명이 먼저 와 있었으니 이제 서울은 淸日양군의 대결장으로 변할 형국에 놓였다. 무더운 음력 7월 한 더위 때의 일이었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7月 11日. 청나라 都督이 내일 서울에 들어온다고 한다. 領選使 김윤식과 문의관 어윤중이 天津에서 왕에게 狀啓를 보냈는데 이르기를 “일본이 임오군란의 일로 파병한다고 하자 청국에서도 수군과 육군 4천명을 뽑아 구원한다고 했다. 저희들도 그들을 따라 이달 7일 남양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그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일본공사 花房이 護衛軍 1천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병사 5백명을 거느리고 대궐로 들어가 대원군과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임오군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7개조항을 제시하였는데 대원군은 단연코 이를 거절하였다.

청국군이 서울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吳長慶 丁汝昌이 이끄는 청국 육해군은 일본군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들은 사령부를 동대문밖 東廟에 설치하였고 남양과 서울을 잇는 水原에도 연락부대를 주둔시켰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일본측으로서는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원군의 눈치 또한 은근히 청국측을 부추겨서 일본의 요구를 물리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하에서 일본과 청국사이에는 은밀한 밀약이 성립되었으니 그것은 청군이 대원군을 중국으로 납치한다는 계략이었다. 대원군이 늙어서였을까. 젊은 날의 그 날카로웠던 머리는 어디로 가고 흰 머리카락만 필러이고 있었다.

7月 13日. 淸將 馬建忠 吳長慶 丁汝昌은 구원병을 자청하고 서울에 입성하더니 오늘 임오군란의 책임을 대원군에게 덮어 씌웠다. 그리고 대원군을 데리고 동작나루를 건너 충남 남양으로 압송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鐘閣위에 방을 붙였다. “너희 나라에 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丁汝昌)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너희들 士民은 이를 의심하지 말고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

한편 청군은 구군 1백여명을 포박하고 그중 30명을 軍門에서 효수하고 궁궐문과 四大門밖 兵營에 파수꾼을 배치하였다. 난을 일으켰던 구군들은 대부분 군복을 벗어던지고 달아나 버렸고 시민들은 도성밖으로 이사하였다. 그바람에 한강 나룻배의 배삯이 올라 강을 건너려면 40~50냥이나 턱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여야만 했다.

대원군은 이날 하오 4시 측근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형궁을 나섰다. 청나라 장수의 만찬 초대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연회장소는 남대문밖 청군 막사안이다. 수상하기 짝이 없는 초대였는데도 그는 귀신에 홀린듯이 집을 나섰다. 이 연회가 그를 납치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원군의 술잔이 청나라 장수 丁汝昌의 술잔과 ‘짱’하고 부딪쳤을 때였다. 이때 갑자기 총검을 든 청군병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닥쳤다. 그리고 대원군은 가마에 실려 밤새 남양만으로 호송되었다. 실로 순식간에 일어난 납치극이었다.

그로부터 3년간 대원군은 머나먼 이국땅 保定府라는 寒村에서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다. 형 이최응을 죽이고 자기는 '33日天下' 끝에 포로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이켜 보면 대원군의 나이 불과 18세때 아직도 고종이 태어나기 16년 전의 일이었다. 아버지 南延君의 묘를 忠南 洪城郡 德山에 정했는데, 이때 형제 모두가 동시에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다. 꿈에 소복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너희들은 내 거처를 빼앗아 묘를 썼다. 물러가지 않으면 기어이 너희 형제를 暴死시키고야 말겠다"고 말했다. 이 무서운 협박에 놀란 형 이최응은 당장 상여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 대원군은 단호히 반대하고 물러갈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 凶夢이 결국은 대원군형제를 숙명지었던 것일까. 지금도 한국인에게 꿈이 갖는 의미는吉凶을 좌우한다. 임오군란으로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 민비는 버젓이 利川 장호원에 살아 있었다.

7月 22日. 민비가 피신한 장호원이 우연하게 藏后院(왕후가 숨은 곳)과 음이 거의 같았고 피신한 마을 뒷산 이름이 梅山이었는데 매산은 민비의 어렸을 때 이름이었다.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라고들 말했다.

#### 4. 濟物浦 條約

임오군란과 청일양군의 서울점령, 대원군의 납치, 민비의 복위, 이 일련의 임오사태는 실로 한국근대 1백년사를 日帝침략과 民族수난으로 얼룩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해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아버지 대원군과 며느리 민비의 집안싸움이 外敵의 家宅침입을 자초하였으

며, 이후 3대에 걸친 후손들의 불행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참으로 역사가 주는 뼈저린 교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원군이 납치된 1882년 7월 13일 이후 민비가 서울에 돌아오는 8월 1일까지 18일간은 문자 그대로 유혈이 낭자한 복수극의 기간이었다. 민비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적들의 시체를 밟고 서울에 입성하였으며 민비 옹립을 명분으로 대원군을 납치했던 청군은 난군진압을 구실로 구군병사들의 근거지였던 이태원동과 왕십리를 기습하여 대량 검거와 학살, 그리고 약탈에 나섰다.

1882年(壬午 高宗 19年)

7月 16日. 청병이 軍兵村인 이태원과 왕십리를 기습하여 군졸 1백여명을 포박하였으며 그 중에서 30여명을 끌라 軍門효수하였다.

8月 1日. 군병촌이었던 왕십리의 70여호에는 모두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살았는데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고 그들의 가산과 집기들은 모두 청병들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 청국군은 또 마을터에 土城을 쌓아 진을 쳤고 무덤을 파내어 그 흙으로 城을 쌓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구군병사들은 미리 마을을 빠져나가 없었으며 남은 사람은 미처 도망가지 못한 노약자들 뿐이었다.

같은 날 청군군인들은 대원군일파의 군부와 정부요인들을 무더기로 체포하였다. 군부요인으로는 總帥격인 이재면(대원군의 아들)을 체포하여 南別宮(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히otel 자리)에 구금하는가 하면 무위대장 이경하 등 三軍총수들을 모조리 잡아서 유배시켰다. 이어 정부요인으로는 李會正, 趙秉昌 부자, 任應準, 李源進, 李載晚 등을 포함한 8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비가 끝내 처형령을 내리게 되는데 전직각료 여덟명을 한꺼번에 죽인 역사는 전무후무한 변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참변이 있는 뒤 일가친척을 모조리 잃은 민비는 혼자 살아서 돌아왔다. 日記에 보면 민비가 장호원에 살아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은 7월 25일이었으며 실제로 서울에 돌아온 것은 8월 1일이었다.

7月 25日. 민비가 궁궐을 빠져나간 뒤 閔判書(應植) 집의 貞敬夫人과 민판 서의 며느리 貞夫人이 몰래 장호원의 魯隱洞에 피신하도록 하였는데 그뒤 다시 閔泳緯집에 머물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고종은 영의정 金炳始와 鄭範朝 尹相萬 金學洙 등을 장호원으로 보내 민비를 모셔오게 하였다.

민비는 이처럼 임오군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이후 50여일 동안 國內亡命을 한 셈인데, 그동안에 그녀 주변에서 일어난 일화는 너무나도 많아 여기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 몇가지 이야기만 소개하기로 하면, 민비가 왕궁을 빠져나와 처음 서울시내 花開洞에 숨어 있었다. 군졸들이 가택수색을 벌이는 바람에 더이상 서울에 은거하고 있을 수가 없어 경기도 여주 친정집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여비가 없었다. 이 여비(5백緡, 돈케미)를 댄 사람이 前承旨 趙忠熙였다. 조충희는 이 공로로 민비의 복권뒤 전남 靈光군수 자리를 얻어 부임하였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 실수로 한 마을이 滅村당한 이야기가 있다. 민비가 가마를 타고 몰래 한강을 건너 廣州 땅을 밟게 되었다. 한 시골 노파가 다가오더니 민비에게 “딱하기도 해라 중전(민비)이 음란하여 남자같은 무고한 부인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구려”라고 수다를 떨었다. 민비인줄 모르고 한 이 순박한 시골노파의 한 마디가 그뒤 한마을 멸촌이라는 비극을 겪게 하였다.

일기에도 閔妃가 장호원에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의 동정에 대해 결코 좋게 쓰고 있지 않다.

7月 26日. 摠戎使 金箕錫이 병사 60명을 거느리고 장호원의 민비의 거처에 가서 侍衛하러 하자 민비는 이들을 물리치면서 청병으로 바뀌 호위하여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청병 1백명이 민비를 호위하고 총융청의 병사들은

막사에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청병이 사방을 포위하여 총용청의 병사들을 屠戮하려 하였다. 놀란 領議政(洪淳穆)과 총용사(김기석)는 민비에게 변명하기를 “여기 온 총용청 군사들은 본시 임오군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특히 오늘 중전을 모시러 온 병사들은 모두 난후에 새로 뽑은 병사들”이라고 해명하자 민비는 ‘도륙내라’는 명을 거두었다. 그리고 30냥의 돈과 30섬(石)의 쌀로써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한강에는 민비의 도강을 위하여 특별히 舟橋를 설치하였다.

8월 1일. 민비가 입궐하자 고종은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 슬픔과 기쁨은 보통사람의 감정과 다를 바 없었겠으나 특히 고종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대원군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었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으리라. 민비를 모셔온 후 問安절차가 있었다. 그런데 축하행사는 오는 8월 7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8월 2일. 대원군이 天津에서 7월 29일에 부친 편지가 왔다. 그 내용은 청국황제가 대원군을 우대하여 주고 있으며 또 접견을 청하였는데, 私服으로 접견할 수 없어 급히 朝服을 만들어 입고 22일에 燕京에 들어갈 예정이며, 8월 초순경에는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있었으나 결국은 헛된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다.

8월 7일. 민비가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하였는데 청국공사 何增珠도 참여하였다. 이날 고종은 척화비를 모두 뽑아 버리게 하였으며 임오군란 때 달아난 난병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을 내리겠다고 공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새 각료명단이 발표되고 임오군란으로 인해 일시 전복되었던 閔氏政權이 다시 섰다. 그러나 민태호와 민영익 등을 제외한 왕년의 閔氏高官들은 모두 죽고 없었다.

8월 1일. 이때 國事를 맡은 자는 홍순목 부자와 김만식 어윤중 김병시 김옥균 김홍집 조영하 민태호 등이었고 민영익은 어디로 숨었는지 소재조차 몰랐다. 더욱이 장안의 治安은 완전히 청군이 장악하는바 되어 우리 군사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8월 1일. 대원군이 청국으로 압송된 후로 궁궐문의 守直과 도성의 巡警은 청군이 도맡았으며 우리나라 군사는 다만 어영청과 금위병 병사 몇명 뿐이

었다. 청병은 敦化門 밖에 本柵을 설치하여 지켰으며 도처에 청병이 지키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모양으로 정권을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이 때처럼 온 국민이 위정자를 원망한 때는 없었으며 실로 이때부터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풍조가 싹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속밭으로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외국군대의 內政간섭까지 받게 한 죄과는 아무리 변명하여도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민비와 대원군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았던 온 국민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임오군란의 이같은 엄청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또하나 명심해 두어야 할 일은 우리의 진정한 적은 청나라가 아닌 倭國日本이었다는 사실이다.

8月 5日. 花房義質이 수백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고종에게 문안을 드렸는데 그 의기가 너무나 양양하여 길에 다니는 시민을 향해 눈을 흘겼다.

하나부사가 문안드리러 온 까닭은 濟物浦條約(1882년 7월 17일)의 조인에 응해준 대가로 찾아온 답례에 지나지 않았다. 日人피살자 13명에 각각 5만원을 배상하고 일본군의 출병비 5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 외에도 開港場을 확대하고 일본군을 서울에 주둔시킨다는 것이 소위 제물포조약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이라말로 日帝침략의 발판이자 시작이었다.

## 맺 음 말

1882년의 임오군란은 개항 6년만에 일어난 최초의 反日鬪爭이었다. 그 發端과 展開過程에서 볼때 이 군란은 단순한 한국내부의 국내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과 같이 보이나 그 실상은 개항이후의 경제혼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경제혼란은 일본군의 비호를 받고 자행된 일본상인들의 약탈적 무역행위로 인해 야기되었으며 그들의 쌀 무역은 개항 후 3·4년만에 穀價를 몇 배나 뛰게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혼란이 민씨일가에 대한 민중의 원성으로 나타났고 군인들이 이러한 민중의 원성을 행동화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은 이때의 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한국을 ‘文明의 敵’으로 낙인찍고 일본군의 對韓侵略正當論을 국내여론화시켰다. 유명한 福澤諭吉이 침략전쟁 선동자로 돌아서는 것도 이때였다.

여기서 우리들은 임오군란을 순전히 국내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여 온 종래의 視角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임오군란은 원천적으로 日本에 의해 강요된 개항(불평등조약)과 그로 인한 경제수탈 및 침략행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閔妃와 대원군 사이에 벌어진 권력싸움만을 그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이미 임오군란 당시의 日本言論報道에서 강조되어 있고, 이 시각이 그뒤의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러한 왜곡된 시각이 오늘의 近代史敍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882년의 임오군란은 진실로 일제침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어내는 새로운 역사서술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